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8 . 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 2018 / 4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생명처럼 존귀한 것은 없다
길상사 시간여행	10	「맑고향기롭게」근본도량길상사회주법정스님②
세계 일주 시작이 반	14	연해주
시심정심	18	청춘
낮은 음계로	20	모를 권리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22	소통을 방해하는 말 - 3
아름다운 마무리	26	4월 결연 대상자 - 김건영(가명)
모단 에세이	28	생활의 향락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31	싱그러운 연못빛 새순
향기 나는 우체통	34	옛기름과 고두밥을 식히며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37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사진·최재완 「참세의 기도」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8년 4월 1일 발행 / 통권 278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연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정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생명처럼 존귀한 것은 없다

글·법 정(法 頂)

이 몸을 70여 년 동안 끌고 다녔더니 뼈꺼져서고 그래서 정비 공장에서 정비를 하느라 몇 차례 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마다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봄이 되니 알레르기 성 천식이 찾아와 기침을 하게 만듭니다. 법문할 때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산하대지에 초록이 물들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잎을 펼쳐 내는 눈부신 봄날,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 몹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살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이는 하나의 기적이고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처럼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은 단 하나

뿐인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근래 우리 시대에 생명의 존엄성이 크게 파괴되고 손상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어린 생명을 유괴하고 살해합니다. 그럴듯한 이유 없이 살해합니다. 이런 행동은 생명을 다루는 농경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씨를 뿌리고 새 움이 돋고 어린 싹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생명이 자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도 같이 옵니다. 흙을 멀리하고 도시화·산업화된 사회에 살면서 메마른 인성이 삶을 힘들게 하고 인간은 설 자리를 잃

게 되었습니다. 소득도 많아지고 가전 제품도 많아 예전보다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 인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육신은 흥기를 갖고 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근본인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몸담은 세상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다를지라도 수많은 생명체들이 어울려 함께 삽니다. 생명은 균형과 조화로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결 고리인 생태계를 이룹니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방곡곡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허물고 파헤쳐져 국토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이 땅의 생명을 파괴하는 재난

이자 재앙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거론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토는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허물고 파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을 가졌더라도 이 땅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국토는 오랜 역사 속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영혼이고 살고 빠입니다. 우리만 살다 갈 곳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신성한 땅입니다. 이런 땅에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국토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은 무기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은 생명체의 집입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이 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물류와 관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류와 관광을 위해 신성한 국토를 유린하는 것은 무례하고 망령된 일이고 속임수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신성한 땅을 유린하는 것은 무례한 행위입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고속철도와 고속도

로가 수송을 담당하는 현실로 이루어 볼 때, 결코 타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삼면에 난 바닷길을 이용해 실제로 운송을 담당해 오던 운하업체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타산이 맞지 않아 문을 닫은 것만 봐도 운하는 현실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터널을 뚫는 운하가 무슨 경제성이 있었습니까? 더구나 세계적으로 운하는 사양 사업입니다.

지금 한반도 대운하를 환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통수단으로 운하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개발 사업으로 땅값 오르는 것에 관심이 있는 땅 투기꾼입니다. 벌써 운하 예정 구역에는 땅값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건설 공사에 관심 있는 일부 건설업자들뿐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운하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강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런 강을 물이 흘러가지 못

하게 막아 놓고 제방을 쌓는다면 강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 자주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는 홍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뻔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 봅시다. 1920년대 플로리다 운하가 완공되자마자 홍수가 범람해 2천 명이 폐죽음을 당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운하의 한계입니다. 운하에는 물을 항상 채워 놓아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호우로 범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뭄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운하는 항상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청계천과 운하는 다릅니다. 청계천은 원래 있던 자연 하천을 되살리자는 것이었지만 운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운하를 이용해 관광을 내세우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

고 있는 것은 운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친절과 비싼 물가,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관광 자원으로 제주도만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는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언어 소통도 안 돼 다시 찾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하를 통해 관광을 내세우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있는 관광 자원도 활용 못 하면서 대운하를 관광 사업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는 커다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진행되는 무모한 일을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 정권과 함께 우리 국토에 대해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무모한 대운하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비롯하여 양식 있는 분들이 반대하고, 국회의원 자신도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모한 대운하 계획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후손에 대한 우리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선조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재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사안임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래 부품을 수리하며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루라도 살면 늙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게 앓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근래 모든 사람이 고맙습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새삼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병이 아니라면 앓을 만큼 앓으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면서 구토가 나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50일 동안 단식 상태였습니다. 제 몸을 본 이웃 사람들은 마치 부처님의 6년 고행상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 회복되었지만, 당시 체중은 50킬로 미만이었습니다. 앓으면서 생각한 것이 그날그날 하루

하루 즐겁게 살자는 것입니다.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서 눈부신 봄날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내일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날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뻔히 알면서 실제로 잘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은 쉽지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울 때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이다. 혹은 내일 하직할지 모른다. 내가 살아 있는 이때 나 자신을 비워야 한다.'며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의 메아리가 상대에게 전달되어 그쪽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바쁜 날 좋은 날 절에 와서 이런 행사에 참여

하는 것은 세상을 보다 지혜롭고 더 그렇게 살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 눈에 보여야 마음을 찾고,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때 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을 온전하게 쓰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것을 용심(用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잘 못 쓰면 겹겹으로 닫힌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산다면, 주변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나를 받아들인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피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어려운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피하지 말자. 왜 내가 이 나이에 증병에 걸려 치료를 해야 하는가.' 앎으면서 생각하니까 모든 게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도 앎는데, 나만 앎지 앎는데, 남의 사정도 모르고 얼마나 오

만한 것인가. 이 몸을 갖고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 앎게 된다. 좋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적으로 수행자로 더 성숙해지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투병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달마 스님은, "마음이란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받아들이다.라도 그 마음이 한번 뒤틀리면 바늘 하나 꽃을 자리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본심이고, 뒤틀린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빨리 비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상 생활에서 마음 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참선하고 염불하고 독경하는 것도 마음을 바르게 쓰려는 것 아닙니

까? 그 밖의 다른 공덕은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배움입니다. 인생이 학교입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삶의 묘미를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 제정신을 차리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하루하루 열린 마음으로 살면서 사는 일 자체가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소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08년 4월 20일, 봄 정기 법문을 녹취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스님은 2007년 10월 가을 법회 이후 강원도에 칩거하시다, 2008년 봄 정기 법회를 위해 길상사에 오셔서 대중 설법을 하셨는데, 1,000여 명의 불자가 참석해 스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법회를 경청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살아 있음은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부드러운 말로 시작하셨으나, 곧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건설과 뉴타운 건설 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어 큰 병을 앓고 난 후 수행자와 인간으로서의 성숙된 느낌과 생각을 피력하셨으며, '즐겁게 살기'를 위한 조건으로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갈등 해소를 위해 '마음을 잘 싸야 한다'며 용심(用心)을 강조하셨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회주 법정 스님 ②

글 • 홍정근

1971년 4월의 봄은 4·19혁명의 희생 위에 겨우 짝이 트기 시작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하는 어두운 분위기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함석헌 선생을 비롯하여 양심과 용기의 상징인 이병린 변호사, 신교계의 큰 어른인 한신대의 김재준 목사, 당대의 사학자인 천관우 선생이 주축이 되어, 4월 19일 서울 대성빌딩에서 민주 수호 국민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법정 스님은 불교계를 대표해 운영위원으로 참가하였다.

불난 집 같았던 1970년대의 현실 앞에서 법정 스님이 가장 아파하셨고, 그 후로도 내내 애석해하셨던 일은 1975년, 이른바 '2차 인혁당 사건'(일명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었다.

도예종 등 사회주의 성향을 보이는 한 무리의 인사들을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구속,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그들에게 사형이 언도되고 대법원 상고기각되자, 채 20시간도 지나지 않은 바로 그 이튿날 가족을 만날 기회도 주지 않고 새벽 4시부터 이들 8명을 차례로 사형시켰다. 시신조차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벽제 화장터에서 불살라 버렸다. 사법 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와 인권이 철저히 짓밟힌 비극적인 날이었다. 이를 목격한 법정 스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1975년 8월 17일 장준하 선생이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추락사로 사망했다. 경찰은 사인을 실족사로 발표

했지만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때까지 늘 일선에 있었던 법정 스님은 1975년 10월, '죄 없는 그들을 우리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고 자책하며, 조계산 송광사 산중 빈 암자 터에 열네다섯 평 3칸짜리 불일암(佛日庵)을 짓고, 독서와 수행 그리고 원고지를 통해서 홀로 있으면서도 대중과 함께하였는데, 이 무렵인 1976년 발간된 저서가 바로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무소유>이다.

불일암에서 수행하던 시절 집필한 저서는 <효봉어록(공저)/1975> <서있는사람들/1978> <말과 침묵/1982> <산방한담/1983> <나누는 기쁨-보현행원품/1984> <달이 일천강에 비치라-효봉 선사 자취/1984> <진리의 말씀-법규경/1984> <물소리 바람소리/1986> <신역 화엄경/1988> <밖에서 찾지 말라-보조선사 법어/1989> <텃 빈 충만/1989>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숫타니파타 강론집/1990> <불타 석가모니/1990> <인도기행/1991> <인연 이야기/1992> <버리고 떠나

기/1993> 등이 있다.

법정 스님은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송광사 수련원장을 맡게 된다. 구산 스님(九山 1910~1983)이 1971년부터 일반인 중심의 대중 수련회를 처음 실시하여 시작된 송광사 선 수련회는 법정 스님이 수련원장을 맡으면서 4박 5일 일정으로 수련생들이 1,080배를 하게 하고, 운좌 모임을 열어 참선 실수·실참을 하며 여름 선 수련회 기틀을 잡는다. 매년 7월과 8월, 불과 두 달간 열리는 수련회의 연 참가 인원은 평균 500여 명으로 불자는 물론 타 종교인들에게까지 큰 호응을 얻었다. 송광사 수련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뒤 웬만한 큰 사찰들은 거의 여름철 선 수련회를 실시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보조사상 연구원장을 맡는데, 송광사 동당 법홍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법정 스님은 사찰의 총무, 재무, 교무 같은 삼직(三

職)은 절대로 맡지 않았으나, 보조사 상연구원 원장직은 맡고 싶어 할 정도로 평생 조금도 쉬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1987년부터 겨울철이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송광사 분원 고려사(1980년 구산 스님이 미국을 방문하여 창건한 사찰)에 가서 서너 달씩 지내다 오곤 했다. 경전 번역 일거리를 가지고 가서, 집필 작업과 법문을 하였으며, 스님에게 영향을 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살았던 월든 호숫가에 두 차례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 고려사 화주인 김대도행(金大道行, 본명 김정선) 보살을 통해서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요정 대원각의 주인 김영한 여사를 만나게 되었고, 대원각을 청정도량으로 만들어 주기를 요청받으나, 번거로운 일에 얽히는 것을 싫어하는 스님은 줄곧 시주를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게 된다. 조계산 불일암에 들어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지켜보면서 눈을 맑히고 숨결을 고르며 지낸지 15년, 인일해지려는 일상의 타성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재출가의 의지로 1990년 인도와 동남아 일대를 다니면서 여러 종교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 보신 스님은 '종교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불일암에 머물면서 점차 스님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끊임없이 찾아드는 사람들로 인해, 1992년 4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그러나 1993년 7월,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이유로 독립기념관, 경복궁 경희루, 창덕궁 부용정 연못의 연꽃이 모두 없어지는 기막힌 사실과 마주하게 된 스님은 그 어이없는 심정을 동아일보 칼럼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는 글로 발표하며, 정부의

다움과 신비를 지켜보면서 눈을 맑히고 숨결을 고르며 지낸지 15년, 인일해지려는 일상의 타성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재출가의 의지로 1990년 인도와 동남아 일대를 다니면서 여러 종교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 보신 스님은 '종교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불일암에 머물면서 점차 스님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끊임없이 찾아드는 사람들로 인해, 1992년 4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파리 길상사 개원후 한글현판을 설치한법정스님  
'종교편향정책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 해 8월, 날로 각박해져만 가고 메말라만 가는 우리 심성과 그리고 세상과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면서 살아가자는 순수 시민운동을 주창하시며, 송광사 말사인 종로 법련사에서 청학 스님, 윤청광, 정채봉 등 주변의 뜻 있는 이와 함께 준비모임을 가진다. 모임의 상징을 연꽃으로 정하였고, 캐릭터 도안은 조선대 고현 교수가 맡아 9월 초순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이어졌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법정 스님은 1993년 10월 10일 프랑스 최초의 한국 사찰인 파리 토르시 주택가에 송광사 파리 분원 <길상사> (프랑스 명칭은 '명상의 집<maison de meditation>')를 개원한다. 유럽 순례 도중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불교포들과 유학생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재불(在佛) 화가들과 함께 뜻을 모아 법당을 마련하는데 나서게 된 것이다.

당시 인간문화재 박찬수는 부처님 존상을, 재불 화가 방혜자는 후불탱화를, 김충현은 현판을 보시했다. 스님은 이때 도움을 받은 화주 불자들을 위해 '길상회를 결성하여, 그 답례로 서울 법련사 옆 출판회관에서 매월 1회 경전 모임을 갖고 <선가귀감> 등을 강의하였다. 길상회는 「맑고 향기롭게」살아가기 운동의 창립에도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길상사 창건에도 힘을 모았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처님 인연이 아닌가 싶다.(계속)

## 연해주

글 • 강인철(작가)

예전엔 꿈도 못 꿰던 구소련 여행, 지금은 하늘과 뱃길이 다 열려 있어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는 이제 제주도 정도쯤 되었다. 시내엔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중고 시내버스가 종로, 영등포, 미아리 등 행선지도 지우지 않은 채 달리고 있었으며 가끔은 한글 간판도 보이고 우리말로 떠드는 동포들도 심심찮게 보였다. 그들은 우리는 '고려인'이라 하고 현지에서는 '까레이스키'라 부른다. 갈(갈대), 깔개(저적), 까뚜막(땅굴집), 골(머리), 바쁘다(어렵다), 밥충이(바보)등 애잔하고 까칠한 우리말을 듣다 보니 한국 사회가 요즘 너무 지나치게 호사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민망한 생각마저 들었다.

160여 년 전,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가난에 못 이겨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간 것을 시작으로 이주민촌이 생겨났고 그 후 일제의 탄압과 핍박에 못 이긴 민초와 독립투사들이 대거 피신해 오으로써 조선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해주와 '신촌'이란 이름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남의 나라에 더 부살이가 된 절절한 사연들을 가슴으로 들어야 했다. 사할린까지 세를 넓힌 그들은 부지런하고 끈질긴 의지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면서 삶의 터를 공고히 하였으나 1937년 9월, 스탈린의 조선인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이곳의 약 30만 고려인들은 죽기 살기로 일궈 낸 삶의 터를 하루아침에 잃고 영문도 모른 채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시베리아 너머 생면부지의 중앙아시아 이곳저곳에 떨구어지고 말았다.

기차 속에서 죄인 취급까지 받아야 했던 한 달여 동안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숨진 사람이 무려 반은 됐을 거라며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3세, 4세들이 지금은 우즈베크, 카자흐, 알타이, 우수프베, 키르기스, 타슈켄트 등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에서 신화를 일구며 '제3세대 까레이스키'로 성공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다니 다행이다.

선대가 못나고 조국이 허약했기에 죄 없는 후손들이 짊어져야 했던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그 모든 악조건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일어난 고진감래의 표상 '고려인'이기에 우리 동포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다.

### 까레이스키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기차 붉은

별호가 모스크바에 닿으려면 8박 9일이 걸린다.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극기 훈련 코스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고려인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싶어 나선 길이라 우수리스크 다음으로 하바롭스크에서도 잠시 내렸다. 일제 강점기 때 연해주와 사할린에서 이주해 온 분들과 최근 별목공으로 왔다가 우여곡절 끝에 정착한 탈북자까지 동포 수가 1만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시장기도 면할 겸 사람 냄새 물씬한 시장통을 먼저 찾았다. 하바롭스크 중앙시장 '르녹'은 얼핏 보아 서울 월드컵 경기장만 한 것 같았다. 우리 동포들은 대개가 곡물, 과일, 야채, 잡화 코너에 모여 있었고 저마다 친절하고 씩씩하고 명랑한 게 의외였다.

열차 내 끼니용으로 빵, 치즈, 오이, 토마토, 요구르트를 챙겼다. 그런데 빵, 치즈, 소시지 값 2만 3천 루블만 받았다고 하며 나머지는 집에서 장만한 것이니 그냥 잡수시란다. "내가 이래 살아



도 로스께(러시아인)보다 낫소.”하며 껄껄 웃는 ‘유가다아저씨의 친절에 잠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조건 5만 루블(약 10불)을 쥐어 드렸더니 이번에는 쌀 한 뒷박을 퍼주시는 게 아닌가. “보소, 우리 처가가 살(쌀)농사 잘 저서 올개(올해) 풍년이오.” 얼떨결에 “하바롭서 쌀농사도 짓나요?” 했더니 “앙이요, 저 아래 우수리스크서 가 왔소, 이거 올배(햅쌀)라 맛이 기가 막히오.” “…….”

고려인을 찾아뵙는 동안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잡았건만 눈자위가 뜨거워지고 말았다. “아델(아들딸 대학 나와 뻘대(Pen) 잡으 사는데 무얼 더 바라겠소, 이거 참 대 잡(접대)도 못하고…” 하며 잡은 손을 연신 쓰다듬는다.

때로는 눈썹도 무거웠던 시베리아 횡단 여행길, 그날 이후 서울까지 배낭 속의 쌀 봉지가 얼마나 무겁고 원망스러웠던지… 하지만 그 소중했던 하바롭스크의 정성이 귀국 후 추석을 맞

아 우리 쌀과 절묘한 공합으로 ‘인절미’가 되어 이웃들에게 고려인의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멀리멀리 살고 있지만 어머니의 나라에서 찾아간 형제를 만나 붓물처럼 터졌던 동포애의 발로가 아니었나 싶어 해마다 추석이 오면 그 생각에 코허리가 쩡하다.



### 고려일보

하바롭스크에서 노보시비르스크를 지나 알마티에서 내렸다. 우리말 우리글 우리 신문 ‘고려신문사’가 거기 있다고 해서였다. 어떻게 찾나 걱정했는데 그건 기우였다. 다행히 양림 사장님도 김순 편집국장도 함께 만날 수 있어 여간 기쁘지 않았다. 서울에서

날아드는 자랑스러운 기사를 대할 때마다 내 조국이 너무 대견해 눈물이 자주 글썽여진다고 한다. 혹여 노상 싸우기만 하는 국회 소식을 듣고는 슬프지나 않았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천장에 매달린 잠자리 날개 선풍기가 전부인 사무실이 몹시 더웠지만 뜨거운 차차를 마시니 이열치열 오히려 시원했다.

양 사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본지 창간은 연해주에서 1923년 <선봉>으로 시작됐으나 강제 명령으로 코주다르로 옮긴 다음 <레닌기치>로 재창간하여 60~80년대까지는 지방일간지로서 1만 부를 찍었다고 한다. 그 후 소련의 붕괴, 새 공화국의 탄생, 독립국마다 우후죽순 등장하는 자체 신문, 한글 세대의 감소 등으로 지금은 2,000부를 내는데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반반씩을 찍어도 몹시 힘든 상황이 되었다며 한숨을 쉰다. 그나마 카자흐스탄 경공업 발전을 위한 ‘2030국가 비전’에 삼성이 컨설팅을 함께하고 있

으며, 강원대학교가 3~4세대를 추천으로 초청하여 한글학교를 통해 컴퓨터 교육을 시켜 주고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인지를 모른다면 위안을 한다.

또 서울 마포의 혜성병원 원장 임박박사님은 카자흐국립병원 꾸리양으로 바 원장과 협약을 맺어 백혈병 어린이 2명을 서울로 데려가 치료를 해준 데 이어 이곳에 ‘백혈병센터’를 세워 구소련 체르노빌 원폭 실험 후유증으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말 못 할 고통을 치유해 줄 계획이라고 한다. 의술을 인술이라고들 흔히 말하고 있지만 이토록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를 알마티에서 듣다니 가슴 벅찬 울림이었다.

김 국장 할아버지의 고향이 강릉이라며 살아생전 그곳에 한 번 가보는 것과 고려인 3~4세대를 위해 이를 악물고 고려신문을 지키는 게 자기의 願이라고 했던 김 국장! 그 바람이 꼭 이뤄질 것을 믿고 싶다.

# 청춘

클 • 사무엘 올만

청춘이란 인생의 한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이다.  
 청춘은 인생이란 깊은 샘의 신선함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한 삶을 뿌리치는 모험심.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도 일흔 노인이 더 젊을 수 있다.  
 나이 먹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 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이 진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처럼 되어 간다.

일흔이든 열여섯 살이든 인간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에 끌리는 마음,  
 어린이처럼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엔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체국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하느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와  
 힘의 영감을 받는 한, 당신은 젊다.

영감의 교류가 끊기고  
 영혼이 비탄의 눈에 덮여  
 슬픔과 탄식의 얼음 속에 갇힐 때  
 스무 살이라도 인간은 늙을 수밖에 없고,  
 고개를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여든 살이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

사무엘 올만(Samuel Ullman, 1840~1924) • 교육가, 시인  
 독일 헤칭겐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차별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수준 높은 학문 및 신앙적 경지를 개척하였고 교육위원, 시민단체, 봉사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은퇴 후 사랑, 자연, 종교 등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펼쳤다.

## 모를 권리

글 • 전 민(작가)

또 낚였다! 내가 미련한 건가 미끼가 좋은 건가. 없는 시간 쪼개어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여지없이 금세 걸려들었다. 호기심을 부풀려 덤석 끌고 들어가는 활자귀신에 홀려 이삼십 분을 흘러당 까먹고 말았다.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달고나나 쫄면 같은 주전부리 앞에서 냉큼 물러서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검색창을 닫기도 전에 깡그리 잊게 될 그런 가십기사에 허랑하게 끌려 다니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부러 클릭을 하지 않아도 온갖 해괴한 사진과 배너광고 같은 것들이 번쩍번쩍 불을 켜고 달려든다. 장삿속이 뻔한 포털사이트에 무엇이 더 궁금하여 열쇠구멍 틈새기

에 눈을 들이대고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

나는 별걸 다 안다. 어떤 연예인이 어디 어디를 고쳤는지, 성 접대 파문의 동영상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엇그제 결혼 발표한 여가수가 속도위반인지 아닌지, 도인인 척 품 잡던 화천의 아무개가 혼외자식에게 양육비를 주었는지 말았는지. 그런 시시껄렁한 걸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아무도 강요한 적 없는 일에 왜 아까운 시간을 축내고서 마치 누구에게 사기라도 당한 것처럼 억울해 하는지 모르겠다.

돈 안 드는 정보라도 골고루 나누어야 은총이라는 듯, 갖가지 잡동사니며 허섭스레기까지 바빠 퍼 나르는 사

람들. 그에 동조하듯 냄새나는 쪼가리에 파리 떼처럼 꼬여드는 나 같은 사람 모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너무 믿는 게 탈이 아닐까.

알아야 면장도 한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세상 구석구석을 한눈에 보는 스마트한 시대. 이대로 가다가는 오물더미에 파묻혀 나 또한 쓰레기가 되어버릴 것만 같다. 아는게 너무 많아져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 마당에 알 권리 못지않게 모를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몰라도 좋을 이야기들에 휩싸여 분수 없이 살다보면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할 지혜나 사람살이의 도리는 저만치 밀려나 있다. 아니 알아야 할 것과 몰라

도 좋을 것을 분별할 가리사니마저 없 어지는 것 같다. 아는 듯하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인 우리, 실은 죄다 헛똑똑이들란 생각을 지우지 못한다.

매체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길인지, 십년 전 내 꿈은 무엇이었으며 지금 내게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런 쓸 만한 생각은 멀리하고 시끌벅적한 세상일에 휩쓸리고 떠밀려다 진정 알아야 할 것은 모른 채 떠나게 되진 않을까. 그리고 보니 모를 권리를 따로 주장할 필요도 없겠다.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모르고 모를 권리 하나만 제대로 찾아먹고 살다 가는 게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드니 말이다.

산사의 풍경소리가 그리운 날이다.

---

전 민 •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경영학을 공부했다. 「수필과 비평」과 「에세이문학」으로 등단했고, 맥심 문학회(현, 동서문학)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에세이문학 편집위원,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복춘시사, 담쟁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봉사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은퇴 후 사랑, 자연, 종교 등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펼쳤다.

# 소통을 방해하는 말 - 3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책임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의무를 다 한다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내 탓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거짓말로 둘러대서 고객을 안심시켜'라고 명령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거짓말 시킨 상사인가요? 거짓말 한 부하 직원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나는 상사가 시켜서 거짓말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책에서 아이히만이 나치정권에서 운송책임을 맡았던 일에 대한 재판과정을 적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라는 질문에,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제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자 관리자였을 뿐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라고 답

하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치정권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이송하는 일을 했고, 이송지가 가득 찼다고 하자 열차에 가스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시받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제가 제작한 '열차' 덕분에 우리 조직은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죠."라고 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정신과 의사 6명은 모두 아이히만을 '그는 나보다 더 정상이며, 준법정신이 투철한 국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 본 한나 아렌트는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그리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라고 악의 평범성을 말했습니다.

책임을 타인에게 넘겨버리고, 아

무 생각 없이 행동하며, 결과에 책임 지지 않는 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행동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여기 있는 것일까? 자문해야 합니다.

공감대화법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고, 그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상사가 시켜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내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부라서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이 음식으로 건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흔히 '~니까'라는 전제로 책임을 부여하고, 행동을 제한

합니다. 장남이니까, 여자니까, 선생님이니까, 학생이니까... 등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인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어떨까요? 장남이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른 형제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니까 조심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니까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니까 머리가 짧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중 몇 째라도 부모의 은혜를 갚을 마음이 들면 책임을 맡으면 되고, 여자든 남자든 신나는 기운을 발산하고 싶다면 조심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도 기분에 따라 옷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빨간 와이셔츠에 마키마우스 넥타이를 맨 선생님을 '선생님이 왜 저러지? 이상해...' 라고 지적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옷차림이 놀랍습니다.' 라고 표현하세요. 학생들은 왜 머리가 짧아야 하나요? 학생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인가요? 머리가 길면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가요? 세계에서 중·고등학생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나라는 몇 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머리 길이가 짧아서 공부를 잘하고, 학생행복지수가 낮을까요? 왼쪽 표의 나라 중 한국만 학생의 머리를 제한하는 나라입니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책을 읽으셨나요? 제목만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인식을 바꾸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칭찬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이론과 연구 결과

가 나오고 있습니다. 칭찬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부담감이 될 수 있으며 자력을 해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질문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을 말했을 때 상대가 공감해준다면 생각은 뭉개뭉개 피어오를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피어오른 생각들이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칭찬하시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이 칭찬이 적절한가를! 칭찬하기보다 그 때 느낌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저 실천해야 할 것은 ‘명령하지 않고 질문하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 부모와 교사들은 특히 명령을 많이 합니다.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셔야 합니다. 질문하시고, 질문의 답을 들으시면 공감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도록 기다려주세요. 그 말들은 그 사람입니다. 그 말들이 무한히 뻗어나가기를, 그 사람이 무한히 성장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공감 대화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 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r94.or.kr](http://www.clear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 후원에 주신 모든 기부지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 맑고 향기롭게 활동 소식과 법정 스님 글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3-129 (사)맑고 향기롭게

## 4월 결연 대상자 - 김건영(가명)

### 쉴 틈 없이 달려온 세월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의 변화로 사업에 실패하여 가족과도 멀어지고 홀로 어렵게 지내시는 어르신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김건영(가명) 어르신은 올해 77세로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어르신은 제주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검역소 5급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동물들의 상태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다

가 당시 한국에 양질의 소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 있는 소를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지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르신은 공무원 생활로 모은 돈과 연금까지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께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마련해 놓은 네트워크를 통해 매우 수월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환 위기를 겪게 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일본 현지 상황도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결국 어르신의 사업도 적용하지 못했고 큰 손실만 남긴 채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든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홀로 하루에 라면 하나로 끼니를

매우면서 열심히 뛰어나셨지만 이미 많은 자본 손실을 본 상태여서 재기하는 것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 혼자가 된 어르신

사업에 실패한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업이 하락세를 겪는 과정에서 직원 등 손해를 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집을 나와 서울에서 홀로 거취하며 책임을 다하고 재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방황에 지친 아내는 이혼을 선택하였고 자식들은 어르신에 대한 원망으로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어르신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 후회와

가족이 겪었을 고통에 눈시울을 붉힙니다.

어르신은 차상위 계층으로 기초연금을 포함한 약 25만 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월세 20만 원을 지출하고 나면 5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당노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합병증으로 시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은 건강을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이 절실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어르신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세를 포함한 생계비 25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봄의 온기가 화사한 꽃을 피우듯 여러분의 따스한 온기가 모여 어르신의 마음에도 한 송이 꽃이 피워질길 기대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시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갈아기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생활의 향락

글 • 김진섭(수필가)

생활의 향락이란 말만큼 흔히 쓰이면서도 그 개념이 막연한, 이의적二義的인 언어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진정으로 생활 향락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지극히 순수 무난한 말에 속할 것이겠지만, 생활의 딜레탕트에게는 그의 근시안으로서도 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말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생활의 향락. 생활자에게 있어서 이것같이 자명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것이 있음으로써 재미도 있고 살 보람도 있는 바 향락면을 생활에서 단연 제거하려 들고, 혹은 그와는 반대로 인생은 향락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외

의 것을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부류의 인간이 비교적 많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무엇 하자는 돈인지를 반성할 여유는 한 번도 갖지 못하고 돈만 모으려는 인색가畜家를 비롯해서 일해 보기도 전에 그 무의미를 주장하는 무위도식자며 공연히 짜증만 내어 그리 함으로써 참된 생활의 환희를 암살暗殺하는 불만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말하자면 생활의 둔갑자로 지평선 멀리 누워 있는 행복된 생활의 만끽과는 절연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개 흉도胸度가 넓은 사람 같으면 보통 일소에 부치고 말만한 사소한 일에 머리를 앓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위험성으로 말하면 어떠한 보수적 생활자보다도 생활의 거짓된 향락자가 일층 심한은 물론이니 그들은 돈 냥이나 있는 것을 기화로 전연全然히 인류 활동의 권외에 서서 자기 일개인의 쾌락을 추구함에 급급한 나머지 결국은 재산을 탕진하고 자기와 자기 일족을 망치고 마는 것이 예사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경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이 타고난 활력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세상의 풍파와 마찰을 당해야 됨은 물론이요 또 우리는 생활의 목적이 생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운동하고 성장하고 전투하는 것이 곧 생활의 목적이 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정력의 신선한 갱생을 꾀할 수

있을 때 그곳에야말로 지장 없는 생활 향락은 추구되는 것이지 안이와 일락逸樂 속에 생활 향락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광명에 찬 생활이란 항상 극복하기를 의욕하고 이 극복은 전투 없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생활의 향락은 현실 생활의 쾌활한 조종과 정신력과 육체적의 조화 있는 균형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생활術生活術이란 결국 뭐냐 하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모든 체험 속에서 우리가 한 개의 심각한 지혜를 도출하는 동시에 그 오묘한 감증을 섭취할 줄 아는 독특한 기교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하여 생활의 향락은 활동과 휴양, 이 양자의 율조律調的인 교호 작용에서 체험되는 것이요, 그 한 가지 것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면적인 인간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경우이라도 생활의 향락

# 싱그러운 연둣빛 새순

글 • 권오분

에 참여할 도리는 없다. 시에 가장 아름다운 생활 향락은 자  
 비상시국에 처하여 오늘날 생활의 연과의 접촉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자숙과 절제는 도처에서 실행되고 것을 역설하는 바다. 활동의 여가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껏 생활 향락이 유유히 실행되는 등산임수登山臨  
 란 아름다운 사실은 순전히 놓고 마 水, 여기서 우리는 제일 간단히 심  
 시고 먹고 입는 것으로서만 여기고 신의 일여一如와 조화를 얻을 수 있  
 있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기로 나는 기 때문이다.  
 그들의 오해에 대하여 일언하는 동

\* 〈박문〉, 1940년 10월  
 \* 출처: 모단 에세이 / 방민호 엮음

## 김진섭(1903~1950) • 수필가

호는 청천(淸川), 전라남도 목포 출생으로 양정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호세이대학 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외국 문학자들의 문학동인지 〈해외문학〉에 참여했으며 이후 극예술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오랫동안 도서관원으로 일했으며 한국전쟁 중에 납북되었다. 수필집으로 〈인생예찬〉 〈생활인의 철학〉 등이 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법정 스님은 맑음을 지혜로, 향기로움은 자비로 풀어주셨습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지혜와 자비, 생명 존중과 평등일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민주적 인권선언인 것입니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인권에 대해서, 일요특강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시에불후 불법전에서 1~3째 일요일은 법회로 진행되며, 4,5째 일요일은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 4월 22일 (넷째 일) / 양정훈 작가 / 인권교육활동가
- 4월 29일 (다섯째 일) / 조혜옥 인권교육 활동가

늦은 봄날의 아침은 어느 시간보  
 다 한기롭고 상큼하다. 전날에 내렸  
 던 비 때문에 풀과 나무는 더욱 싱그  
 럽고 여린 연둣빛에서 초록을 향해  
 빛의 행진을 하는 듯하다. 아니 그것  
 은 눈에 보인다고 보다 마음에 느껴  
 진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  
 하는 식구들 덕분에 아침 7시면 나  
 는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 설거지, 청  
 소, 빨래들을 미루어둔 채 산책을 한  
 다. 산책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쓰긴  
 하지만 집에서 조금 떨어진 개천을  
 돌아다니는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  
 아서 개천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  
 다. 개울가에는 어느새 환삼덩굴이  
 많이 자라서 발목을 간지럽게 했다.

풀들이 빗물을 머금고 있다가 바짓  
 가랑이를 적시고 운동화도 금세 흠  
 뻑 적셔 버린다. 많은 것이 물에 실  
 려 오다가 물이 줄어드는 곳에서 자  
 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개  
 울가는 어느 곳보다 다양한 생태가  
 이루어진다. 갑자기 유치원 아이들  
 이 부르는 동요가 생각났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낮에는 채식을 좋아하는 친구들  
 이 오기로 해서 도량을 따라 걸으며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을 뜯었다. 명  
 아주도 한 줌 뜯고 망초도 순을 꺾  
 고 돌나물도 조금 뜯었다. 방가지 풀  
 은 너무 연해서 큼직한 순을 따는데  
 '사각'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생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내 몸에 전율이 흘렀다. 나물을 뜯다가 전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큰 복이다. 햇살도 피지기 전인 이른 아침에 싱그러운 야생초들을 만나는 즐거움이라니... 길 위에서는 차 소리가 시끄러운데 도심의 개울가는 별천지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미가 급하다고 하더니 정말인 듯하다. 한 시간 가량 개울가를 서성거리면 들어보니 출근하는 승용차들이 '뽕뽕!' 클랙슨을 누르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다. 어차피 막히는 출근 시간인데 단 1~2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뽕뽕거리다니... 잠시 길을 걸으며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오늘 들으니 소음이 심각했다. 그들도 경적 소리가 소통을 도와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알면서도 참으려 하지 않는 거다. 아니면 그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를 일

이다.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을 텐데...

나물이 가득 담긴 봉지를 들고 개울을 건넜더니 꽤 큰 뽕나무가 한 그루 있다. 이른 봄에 부지런한 누군가가 손을 따 갔는데도 어느새 다시 새순이 연하게 돌아나 키를 키우고 있었다. 뽕나무의 어린 순은 나물로도 맛있고 몸에도 이롭다. 봄에 많이 따서 삶아 냉동실에 넣어두면 여러 번 맛있게 나물 무침을 해먹을 수 있어서 저장용으로도 그만이다. 어떤 이가 손을 잘라 주어서 그런지 잎사귀 마디마다 다시 새순이 생겼다. 처음에 손을 딸 때는 아까워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손을 따 주어야 더 많은 손을 딸 수 있다고 하시던 내 어린 날의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

녹색의 오디가 잎 마디마다 많이도 달렸다. 그 열매에 새순이 또 나

고 있으니 식물의 세계는 신기하기만 하다.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때 생기는 식물의 반응이었는데 뽕나무의 열매가 특히 많은 것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 비단 실을 만드느라 누에를 치기 위해 뽕잎을 따고, 뽕나무는 종족 번식을 위하여 열심히 열매를 맺고, 그러면 사람들은 맛있는 오디를 또 따 먹고... 자연의 순환 고리를 생각해 보니 재미있다. 그 순환으로 사람들이 좋은 식물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 신의 축복이랄 밖에...

한 개의 손을 아끼지 않고 손 자르기를 하면 열 개도 백 개도 얻을 수 있다는 신묘한 자연의 섭리. 한 개

를 아까워하다가 아흔 개를 잃는 바보 같은 삶. 문득 나는 나의 지난날들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돌이켜보았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았다. 내 것만을 챙기진 않았는지,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간이란 후회하며 사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 후회의 날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후회 없는 삶. 그 무엇도 욕심내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많은 것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꾼다. 자연이 내게 준 그대로를 아끼며 지키며 살 수 있는 삶 말이다.

---

**권오분** • 동네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로 소문난 권오분님은 과거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오랫동안 글을 연재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써왔다. <제비꽃 편지> <꽃으로 여는 세상>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 <공제> 등이 있다.

## 옛기름과 고두밥을 삭히며

글 • 최미자

제법 쌀쌀하더니 얼마 전에는 우박 비까지 잠시 내렸다. 샌디에이고는 올해 영하의 날씨는 아니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겨울 기분이 든다. 이럴 때면 하얀 물 위에 밥알이 둥둥 뜬 식혜가 생각난다. 먹고 싶어 옛기름을 정수 물에 풀고 5분(50%)도 현미로 고두밥을 지어 전기 오븐에 넣고 삭히는 동안 나는 지난날 친지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피어나 미소를 짓는다.

경상도는 단술, 서울 사람들은 감주라고 부르는 식혜는 고향 광주에서 어릴 적 외갓집의 제삿날이나 설에 먹던 고급 후식이었다. 광산동 외삼촌댁의 넓은 이층 부엌에서 친척

외숙모님들이 모여 제사 음식을 만들며 제주 방언으로 고주알미주알 집안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신난 열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가지가지 양념으로 다진 소고기 산적과 여러 가지 나물과 전을 맛있게 먹던 때를 생각하면 나의 입가엔 군침이 돈다. 요즘처럼 잘 먹던 시절이 아니라서 두어 달에 한 번은 기다려지는 날이었다. 나는 옛날 그 어린 시절이 좋아 친척이 우리 집에 모일 때마다 그렇게 요리하고 대접하는 걸 좋아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맛별이와 핵가족으로 한국에서는 명절 음식도 전문 업체에 주문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 조금 서글프다.

붕지 속 옛기름을 볼 때마다 오래 전 공군 사택에서 보리 싹을 손수 길러 옛기름을 만들던 여고 선배가 생각난다. 학창시절 공부는 물론 두 팔도 잘 키웠고 집안 살림도 완벽하던 선배는 내조도 잘하여 결국 남편의 어깨에 별까지 달았으니 대단한 여인이었다. 1960-70년대 여자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결혼하면 아이를 키우느라 모두 솔뚜껑 운전사라며 무시당할 때였다.

또 서울에 살 때 나는 우연히 이웃에 사는 나이든 소박한 아주머니로부터 감주 만드는 법을 배웠다. 홍아주머니 내외분은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다정한 목소리와 얼굴이 눈에 선하다. 당시엔 따끈따끈한 온돌방의 이불 속에서 오래 삭혀 끓였지만, 뽀얀 흰색 내기가 어려웠다. 모든 음식 맛이 그러하듯 식혜도 원료가 참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난 한국 상품을 파는 마켓의 선반에서

서 나와 가족이 먹을 음식처럼 양심과 정성으로 만든 회사의 옛기름 분말 가루를 찾느라 한참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옛기름을 물에 가라앉히고 현미를 오독오독 깨끗하게 문질러 씻어 내는 일도 중요하다. 현미는 농약 성분이 많기 때문이다. 전기밥솥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나는 큰 전기 오븐 속에 넣고 조금 많이 만드는 편이다. 기다리는 6시간 동안 이것저것 집안 일을 하다 늦은 밤이 되기도 한다. 식혜의 예쁜 주인공인 밥알이 둥둥 뜨기까지의 과정이 참 힘들어 여러 번의 실패로 한동안 만들어 먹지 않던 식혜였다. 드디어 오랜 시간과 연구 끝에 옮겨올엔 내가 식혜 만들기에 여러 번 성공했다.

삭힌 후 끓이면서 거품을 한참 거두는 과정도 다리 아프지만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견디어 낸다. 아, 그 때 부엌에 피어나는 김이 나의 코



끝에 다가오는 은은한 식혜 향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옛기름 속의 아밀라아제 효소와 고두밥의 전분이 어울려 우리 몸속의 장을 편안하게 한다니 한국의 고유 음식을 만들며 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 번 놀란다.

옛기름을 만들 때 보리 싹이 길어도 맛이 없으니 적당하게 길어내는 것도 기술이란다. 여러 날을 콩나물처럼 시루에 안치고 꺼내 씻어내고 또다시 물을 부어가며 정성으로 만드느라 옛기름(맥아). 또 자라며 영킨 보리 뿌리와 싹을 갈라내는 작업을

거쳐 말린 후에 거칠 거나 하얀 분말로 우리 손에 들어온다.

이런 과정을 직접 하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색깔도 고운 하얀 식혜는 말토스와 글루코스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 서양의 요구르트가 부럽지 않다. 우리 가족은 설탕을 넣지 않고 차거나 따뜻하게 데워 향기와 담백한 맛을 즐긴다. 싸늘한 날씨 아래 식혜 속에 피어나는 나의 옛 추억 이야기로 남편과 딸이 귀를 기울이며 흠뻑 젖어 있는데, 지난번 나누어 먹은 지인들로부터 맛있다는 전화까지 오니 흐뭇한 저녁이었다.

**최미자** • 광주에서 태어나 화학과를 전공했다. 「현대문예」와 「수필시대」에서 수필로 등단하여 「레몬 향기처럼」 책을 냈다. 현재 미국 남가주 샌디에고에 거주하며 미주문인협회와 재미수필가협회 회원으로 수필가로써 활동하고 있다.

##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 부처님 오신 날 - '자비의 등'을 나누세요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2일로 다가왔습니다.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자비의 가르침을 퍼신 부처님의 뜻을 따라 시민모임 매품향기롭게에서는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 머무르실 때부터 주창하신 이웃과의 나눔 운동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 친지가 아닌 우리 곁의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자는 취지로 매품향기롭게 모임에서는 1995년에 처음 시작했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의 방식은 본모임이 결연을 맺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대상자중 어려운 형편으로 연등을 밝히지 못하는 불교신도를 위하여 길상사 도량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것이며, 후원해주신 동참금 전액은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반찬 나눔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데 사용됩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는 운동에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사단법인 매품향기롭게
- ※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의 동참금은 최소 10,000원입니다.
- ※ 계좌 입금을 해주실 때 자신의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시거나 중앙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18년 밝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인권’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시민모임 (사)밝고 향기롭게에서는 길상사와 공동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입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우리의 인권은 지금 어디쯤 머물러 있는지 또 어디쯤 멈춰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엄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무엇인가를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삶 속에 녹아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기획한 강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나의 삶에 어떻게 닿아있을까 궁금하시지요?

- ◆ 언제 : 3월 ~ 11월 넷째, 다섯째 일요일(사시예불 마치고)
- ◆ 어디서 : 서울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

2018년 강연회 일정 안내		
강연 일자	초청 강사	강연 주제
4월 22일	양정훈	인권일반 2
4월 29일	조혜옥	아동&청소년 인권 1
5월 27일	조혜옥	아동&청소년 인권 2
6월 24일	서미화	자원 활동과 인권
7월 22일	고현희	장애 인권
7월 29일	유일영	여성 인권 (성 평등)
8월 26일	송재영	인권과 평화
10월 28일	김숙희	노동 인권
11월 25일	모천석	가정 인권
※ 강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월 22일(넷째 일) 초청 강사

양정훈 작가 / 인권교육활동가

- 저서 <북유럽은 행복하다> 등
- ARTRABEL 편집장 /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팀장
- 영국 로햄튼대학교 사회대학원 인권정책학 석사
- 노르웨이 트롬쇠대학교 문화인류대학원 인권이행학 석사

### 4월 29일(다섯째 일) 초청 강사

조혜옥 인권교육활동가

- 평화인권교육센터 교육활동가
- 인권교육공동체 '참' 운영위원
- 국제아동인권센터 강사 / (전)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원



# 2018년 숲기행 맑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2018년 숲기행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행터인 암자를 둘러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본래의 나를 찾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접수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숲기행 일정 : 매월 4째 주 토요일

일자	장소	숲 특성
4/28	규봉암	5,800만 년 전에 생성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주상절리대인 광석대 아래 위치
5/26	내소사 창련암	일제 강점기에 송진우, 김성수, 백관수 등 독립지사가 일제를 피해 머물렀던 암자
6/23	신흥사 금강굴	유네스코,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깊숙하고 높은 암벽 중간에 조성된 굴로 원효대사도 수행한 곳
7/28	대전사 주왕암	중국 고대의 주왕이 신라로 피신 와서 머물렀다는 주왕굴과 아들이 주왕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지은 절 주왕암
8월은 휴가철과 더위로 휴식		
9/22	변산 월명암	신라 신문왕 11년 부설거사가 창건하였고 계곡과 숲길이 아름다운 암자
10/27	속리산 암자순례	정조 11년 조성한 순조대왕 태실과 태실 원찰 법주사와 산내 암자들 그리고 숲을 지키고 가꾼 스님들의 이야기
10/12	송광사 불일암	법정 스님께서 수행하셨던 암자 (봉사자 숲기행)

- ◆ 8월은 더위로 숲기행이 진행되지 않음
- ◆ 10월 12일은 봉사자 숲기행으로 (사)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만 참여 가능

## 2. 접수 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길상사 신도 :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4월 2일, 5월 7일, 6월 4일, 7월 2일, 9월 3일, 10월 1일)
- 일반인 :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4월 9일, 5월 14일, 6월 11일, 7월 9일, 9월 10일, 10월 8일)

## 3. 참가비

- 회원 및 신도 : 30,000원 / 일반인 : 40,000원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4. 할인 안내

- 전년도 3만 원 이상 후원 회원에 한하여 할인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후원금 납부하여 3개월 후 참여 가능
- 길상사 신도(신도증 소지자 등)
- 가족 참석은 직계 가족 1인으로 한함

## 5.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출구: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 6.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02-741-4696)

### 2018년 '맑고 향기롭게·길상사 장학생' 공지 및 장학증서 수여식

- 장학 대상 :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교 학생(5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분기마다 각 학교 발전 기금 계좌로 입금됨)
- 장학생 선정 발표 : 2018년 4월 4일(수)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수여식 : 2018년 4월 13일(금) 예정
- 수여식 장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 서울, 경기권 선발 장학생은 필히 참석 요함 (추천자, 학부모, 선생님 동참 가능)
  - 지역 거주 학생은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대구, 경남, 광주 모임)을 통하여 별도 수여



## (사)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자원활동 지원사업 나누는 기쁨

(사)맑고 향기롭게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전공을 살려 마음, 세상, 자연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행의 실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자원활동 지원사업 "나누는 기쁨"을 공모하오니 대학생 봉사 모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모집대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동아리 팀

### 2. 팀 구성

5~10명(최소 5명) / 학교, 전공, 성별, 나이 무관, 학교 연합 가능

### 3. 봉사자 혜택

- 최대 150만원 봉사활동비 지원
-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 4. 일정

- 접수기간 : 4월 2일(월) ~ 4월 13일(금)
- 합격팀 발표 : 4월 18일(수)
- 합격팀 OT : 4월 21일(토)
- 봉사활동 수행 : 5월 ~ 10월  
- 최소 6회, 30시간 수행

-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봉사활동 1회 참여(의무)

-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11월 16일(금)
- 결과보고회 : 12월 1일

※ 세부 일정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접수방법

- clean94@hanmail.net '나누는 기쁨(팀이름)'으로 전송
- 상세한 모집 진행 및 서식 다운로드는 홈페이지 확인 [www.clean94.or.kr](http://www.clean94.or.kr)

### 6. 문의처

02-741-4696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사무국

### 2018년 정기 이사회, 대의원 총회 개최 및 사업, 재무보고 홈페이지 공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2017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이사회(2월 10일)와 대의원 총회(2월 28일)를 개최하여, 중앙모임을 비롯한 각 지역모임의 2017년 회계 감사 보고, 사업 결과, 결산 및 2018년 사업계획,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경남, 광주모임을 수단법인으로 등기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지부 회칙을 정비하여 제정하였으며, 이두호 이사 사임으로 인해 홍정근 법인 사무국장을 이사로 겸직함을 의결하였습니다.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재무보고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모임 홈페이지(참여·후원) - <사업·재무보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성황리에 열려

우리 시대 큰 스승이셨던 법정 스님 입적 8주기를 맞아 우리의 가슴속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스님의 문장들을 낭송하고 노랫말로 만났으로써 작은 행복을 느껴보고자, 법정 스님의 양력 입적 일인 3월 11일 오후 1시 30분, 길상사 설법전에서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어린이 노래 그룹 작은 평화가 '우리 스님 좋아하는 이유', '빛방울', '떠난다는 건' 등의 곡으로 음악회를 열었고, 꽃들 힐링

시 낭송회와 배우 승주영이 출연하여,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에서 가려 뽑은 글을 시극으로 연출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가수 권미희 씨와 박창근 씨가 법정 스님 글을 노랫말로 쓴 곡 '나무처럼'과 '텅 빈 고요'를 발표하여, 음악회에 참석한 많은 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스님의 잠언을 통해 마음의 울림이 있는 봄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 법정 스님 입적 8주기 추모 법회 봉행

법정 스님 입적 8주기 추모 법회를 음력 기일인 3월 13일(음:1월 26일) 오전 11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소박하게 봉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의 명종을 시작으로, 조계종 어산 어장이신 원명 스님께서 종사영반을 집전하시는 가운데 헌향, 헌다, 헌공, 헌화가 이루어졌으며, 특별히 (사)맑고 향기롭게가 장학사업과 결식사업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1월 31일 수상한 국민추천포상 '대통령 단체 표창'을 법정 스님 진영에 헌상하는 뜻깊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날 법정 스님 육성 법문은 2006년 12월 창건 9주년 법문으로 길상사 창건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스님께서 도량의 수호신들에게 드린 기도문으로 길상사 창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동당 법흥 스님께서 추모 법문과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 광주 무각사 청학 스님의 추도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은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기를 염원하였으며, 길상사 주지(맑고 향기롭게 이



사장) 덕일 스님은 맑고 향기로운 사찰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소유 정신을 다시금 일깨워준 법정 스님 입적 8주기 추모 법회는 버리고 또 버리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되뇌는 귀한 자리로 원만히 회향되었습니다.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한 게시판에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500여 가정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7지를 나누고 3월에서 11월 둘째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 전화 말벗 자원활동

전화 말벗 자원활동은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말벗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

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봉사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지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달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ark)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4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



요일(12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 (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4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 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 (24일)/오후 1시 30분/다라니 다원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21, 28일)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 결식아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사)맑고 향기롭게
-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02-741-4696 / 홈페이지: www.clean94.or.kr
- 이메일: clean94@hanmail.net / 주소: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벗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목욕 식사도움 빨래장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9시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및 마음나누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 분기별 성

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함께 명상 및 문화기행

- 시민서로배움터 '올제' : 연 중 다양한 시민강좌, 문화기행, 체험 프로그램 진행, 함께 하실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맑은산 캠페인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한 등산모임 / 비정기 매달 1회 진행
- 야생화 무료 나눔 행사 : 4월 한 달동안 대구모임 사옥에서 선착순 나눔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대구모임에서 진행중인 각종 자원활동
- \* 매월초 소식지 우편 발송 작업
- \* 월중 수시로 사옥 관리 및 청소 도움 주실분
- \* 매주 수요일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 배달 자원활동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임원 추천 및 지원 받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 경남, 광주지부를 사단법인으로 등기함으로써, 2월 10일 법인 이사회에서 정관에 준한 지부 운영회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지부 임원은 대의원 총회 종료일자(2018년 2월 28일)로 임기가 결의되었기에,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공감하고, (사)맑고 향기롭게 목적사 업인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실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피천거권'이 있는 회원을 지부 임원으로 추천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맏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운영/오전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맏고 향기로운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만들기:매주월요일오후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맏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매일 오후 2시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5만원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9회차 기도가 4월 20일(금)에 입재되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 지장재일

- 일시: 4월 3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4월 7일(토) 오후 6~8시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관음재일

- 일시: 4월 9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4월 14일(토) 오후 8시 00분 ~ 4월 15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극락전

###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4월 16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금강경 기도 8회차 회향

- 일시: 4월 19일(목) 오후 2시
- 장소: 극락전

### 금강경 기도 9회차 입재

- 일시: 4월 20일(금) 오후 2시
- 장소: 극락전

### 저녁 예불 시간 변경 안내

- 4월부터는 저녁 예불 시간이 기존로 변경됩니다.

###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3월 17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4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지장재일	4월 3일(화)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다라니기도	4월 7일(토)	저녁 6시	극락전
관음재일	4월 9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4월 14일(토)	저녁 8시	극락전
초하루법회	4월 16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금강경 기도 8회차 회향	4월 19일(목)	오후 2시	극락전
금강경 기도 9회차 입재	4월 20일(금)	오후 2시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중고등 법회실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 길상사

불기 2562(2018)년 부처님 오신날

# 연등접수안내

대등(어간등) -1년등-	법당등 -1년등- (10만원)	마당등 -2개월- (3만원)
가족 대등 영가 대등	극락전 가족등 극락전 영가등	마당 가족등 마당 영가등

1년등은 동안거 해제일인  
2019년 2월 19일(음력 1월 15일) 이후에 내립니다.

**접수문의 : 종무소 02)3672-5945**

지혜·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제 19회 길상음악회

- 일시 : 5월 22일 (화) 저녁 7시
- 장소 : 길상사 뜨락
- 출연 : 평양민속예술단, 국악가수 권미희, 퓨전국악밴드 Whool (홀)



#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2018. 5. 5(어린이날)

##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 2018. 3. 19(월) ~ 4. 22(일)
- 참가 대상 : 전국 초등학교생
- 접수 인원 : 선착순 150명(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
- 접수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행사 안내

- 일시 : 2018. 5. 5(토) 13:00~18:00
- 장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 내
- 참가 부분 : 운문·산문
-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원고지 받침대, 돗자리, 물
- 시제 : 어린이들의 맑고 향기로운 정신과 연관된 시제를 당일 공개합니다.
- 작품 제목 : 자유롭게 정함

## 시상 내역

구 분	저학년		고학년		상 금
	운문	산문	운문	산문	
무소유상	각 1명 (총 4명)				상장 및 상품권 30만원
맑음상	각 2명 (총 8명)				상장 및 상품권 20만원
향기상	각 3명 (총 12명)				상장 및 상품권 10만원
장려상	각 5명 (총 20명)				상장 및 상품권 5만원

※수상자 전원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무소유' 동화책을 드립니다.

## 문의 전화

☎ 02-741-4696 (상담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lean94.or.kr](http://www.clean94.or.kr) / Tel. 02.741-4696